



# 안전의 기본으로 무재해 5배 달성

## -유니셀주식회사-

미래의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을 꿈꾸며,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건설하고 탄탄한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위해 성실과 노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기술개발과 합리적인 기업문화를 구축해 온 기업이 있다.

바로 21세기 초일류 기업으로 재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 유니셀주식회사(김경근 대표이사)이다.

1988년 설립되어 반도체 장비산업에 진출한 후 꾸준한 연구개발로 반도체 제조과정시 발생하는 유해 가스를 기존의 수처리 방식이 아닌 열에 의한 분해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Gas Scrubber 개발을 96년에 성공하면서 유니셀주식회사의 기술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업체에서 유니셀을 찾고 있다.

### 안전은 기본

이처럼 유니셀(주)의 기술은 세계적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재해 5배 목표를 달성한 이 곳은 안전

작업과 작업 지시 훈련 강화, 안전보건 진단점검 및 안전순찰 강화, 잠재위험발굴운동의 적극전개를 2002년 안전보건방침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안전보건 방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니셀(주)의 안전활동은 화려하진 않지만, 기본을 충실히 지키는 것을 최우선시 함을 알 수 있다.



김경근 대표이사

유니셀의 안전은 김형균 상무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김형균 상무는 안전에 특히 관심이 깊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은 직원들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사업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은 기본에서 비롯되므로 기본을 지키는 안전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라고 늘 강조한다.

### 안전교육 학점제 운영

이곳의 작업 특성은 단순 노동이 거의 없는 데 비해 용접작업이 많이 이루어진다.

아크 용접 뿐만 아니라 티그 용접 등 특수 용접이 많아, 유해광선에 의한 눈, 피부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그래서 신입사원은 OJT를 통해 작업의 위험성 숙지와 공정 이해를 통해 어느 정도 작업을 이해하고 안전한 작업을 한다고 판단된 후에 용접 작업에 투입시킨다.

또한 이 곳에서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이수필증을 발급한다. 이는 제품을 납품할 때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직원은 납품작업에 투입시키지 않고 철저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이 밖에 매월 실시하는 직무 OJT 교육시 안전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데, 교육 교안으로는 월간 안전기술의 교안을 주로 사용한다고 한다.

올 10월부터는 부서별 OJT에 사용될 교육교안전을 마련하고, 자체 모든 교육을 의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성시목 과장은 “모든 교육이 학점제로 운영하여 기간 내에 기준 학점을 모든 근로자들이 이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이수필증을 발급 관리하는 교육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유니셉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였다.



## 무재해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안전사고는 예고가 없다. 물론 여러가지 안전운동, 기법 등이 있겠지만 이 곳은 지난해 노·사·정 합의 하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중심으로 모든 안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은 가장 안전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라, 이를 충실하면 재해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김형규 상무의 말이다.

또한, 현장의 소팀장 단위로 관리감독자를 많이 선임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배가시켜 팀 단위별 자율 안전 시스템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실시한 안전활동을 팀별 안전활동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무재해를 이룬다는 포부다.

지금은 무재해 5배를 달성하였고, 무재해 10배를 향해 모든 임직원은 매진해야 한다. 그러나 무재해 5배에서 10배가 기간이 너무 길어 자칫 근로자들이 무재해 목표를 망각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 성시목 과장은 3정 5S 등 안전활동을 제도화하여





자율적인 안전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 답한다.

또한 매월 안전협회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안전기술 지도를 받고 있어, 이때 지적해 주는 안전의 문제점은 유니셈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충분하다고 한다.

끝으로 김형균 상무는 “직장인들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이는 곧 직장이 제2의 가정이라는 뜻이지요. 또한,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한 안전사고가 개인들의 가정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활동은 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지키기 위한 마음에서 생겨나야 합니다”라며 안전이 개인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였다.

오늘은 무재해 5배를 달성했지만, 유니셈(주)가 급속도로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것 만큼 더욱더 성숙한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기원한다. 

〈취재 · 사진 : 최종덕 기자〉

